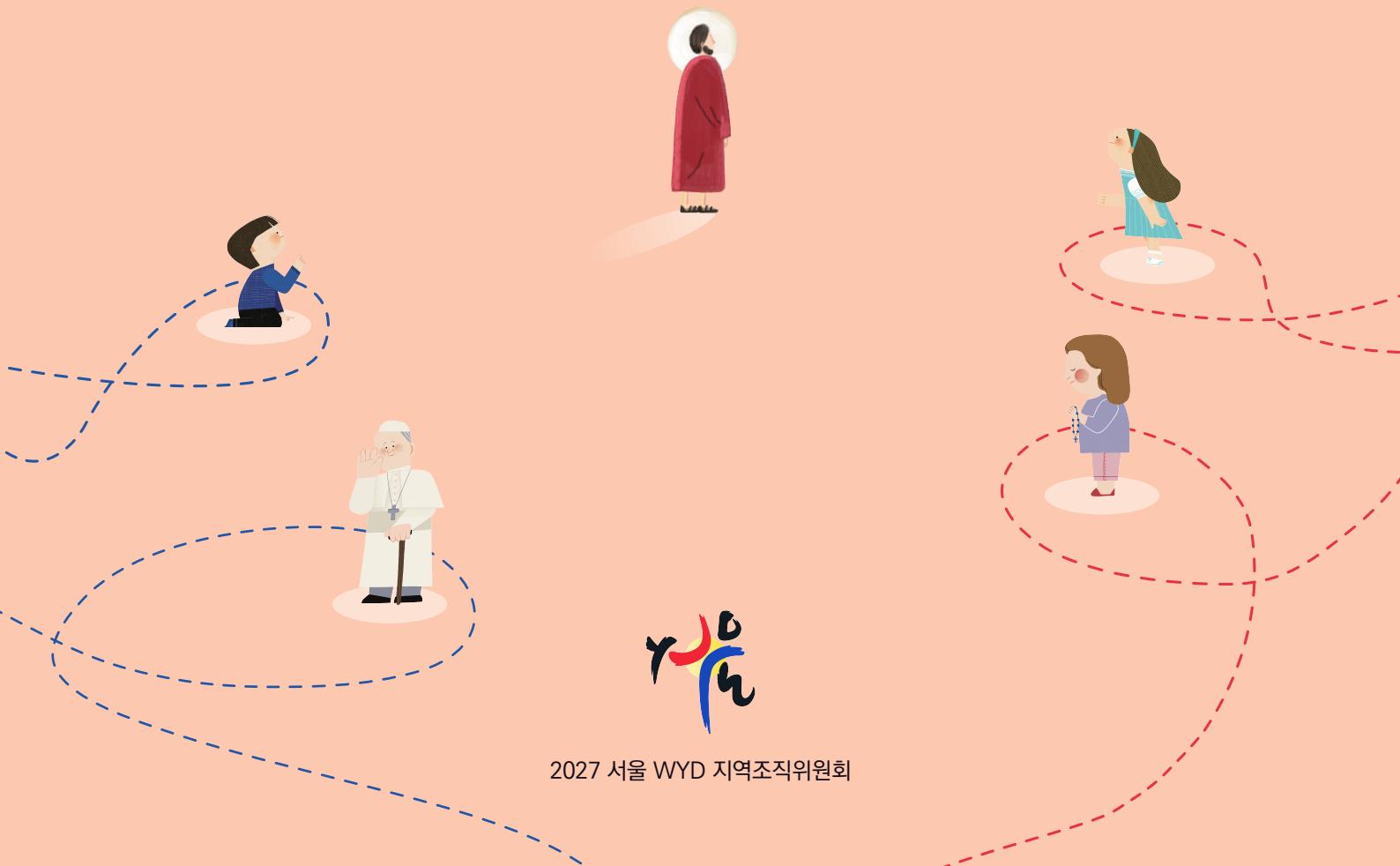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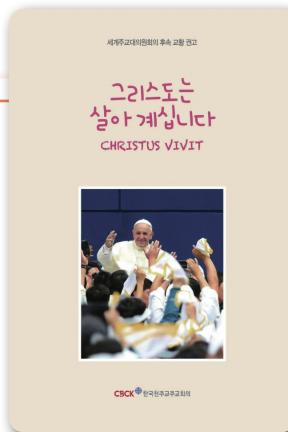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여정을 시작하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여정을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 구성원의 이름

은(는)

이 워크북을 시작하며

지향

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

펴낸 날 • 2025년 3월 6일 교회 인가

2025년 5월 11일 초판 1쇄

펴낸 이 • 정순택

편찬위원 • 2027 서울 WYD 교재개발팀

박선주, 방종우 신부, 윤성희, 이병철 신부, 이영제 신부, 임나경, 정지연, 허유정

삽 화 • 서예희

캘 리 • 유임봉

사진제공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김소현

펴낸 곳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4층 WYD 지역조직위원회 사무국

wydseoul2027@wydseoul.org

<https://wydseoul.org>

인쇄 • 가톨릭출판사

ISBN 979-11-6015-113-8 03230

값 4,000원

성경·전례문·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이 책에 대한 저작권과 판권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차례

추천사 _4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 활용 방법 _6

시노드를 위한 기도 _14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_15

1과 여행을 떠나며 – 나 너 그리고 우리 _16

2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_22

3과 길 위에 선 나와 너, 그리고 하느님 _29

4과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_36

5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_42

6과 젊음의 길 _48

7과 함께 걷는 길 _55

8과 부르심과 식별 _61

9과 가자! 갈릴래아로! _67



추천사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모인 젊은이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12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순간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체험하지 못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느님의 이 크신 사랑에 흠뻑 젖어 드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사랑의 고백들이 모여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계청년대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맘껏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는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빕니다.

이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은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고 나누며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행복하길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기쁨 가득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에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정순택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 활용 방법

2027 서울 WYD와 젊은이 사목



WYD는 World Youth Day ‘세계 젊은이의 날’ 또는 ‘세계청년대회’의 약자로, 교황님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념하고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종교적이면서 문화적인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85년 ‘세계 젊은이의 날’을 제정 하시면서 각 지역 교회에 젊은이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마련하게 하셨고, 매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후 전 세계 모든 젊은이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친교와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1986년에 첫 WYD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3 리스본 WYD’ 파견 미사 때에, 다음 2027년 WYD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24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말씀을 ‘2027 서울 WYD’의 주제 성구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구는 해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교황님께서 발표하시는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문의 주제 성구들과 연결됩니다.

| | |
|---------------|--|
| 제39차(2024-5년) | “주님께 희망을 둔 이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이사 40,31 참조 |
| 제40차(2025-6년) |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요한 15,27 |
| 제41차(2026-7년) |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

모든 지역 교회는 각 해에 주제 성구를 중심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2027 서울 WYD’도 이러한 연속성 안에서 진행됩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와 교황님과 함께 순례하고 친교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WYD는 단순히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WYD는 그 시작부터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하여 마련한 순례의 긴 여정이며, 젊은이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의 목적

본 워크북은 ‘2027 서울 WYD’로 향하는 여정 안에서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WYD는 단순한 국제 행사나 사목적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그분과 맺게 되는 친교 안에서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젊은이들은 WYD를 통해 체험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바탕으로 온 세상에 기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WYD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속한 교구 및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워크북에 따라 나눔을 함께 한 젊은이들은 오늘날 자신에게 필요한 복음적 가치를 식별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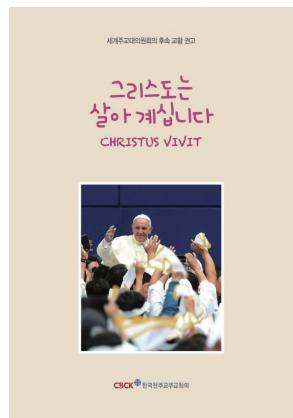
워크북의 구성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돋기 위해 마련된 본 워크북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함께 나눔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문헌은 2018년 10월 바티칸에서 개최된 젊은이들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발표하신 권고입니다.

워크북 1과부터 3과에서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기 전에 나와 너, 그리고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나눔을 진행합니다.

4과부터 8과에서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성찰한 후, ‘성령 안에서의 대화’에 따라 나눔을 진행합니다.

9과에서는 과정 전체를 마무리하며 ‘2027 서울 WYD’의 주제 성구를 묵상하고, WYD를 어떻게 준비하여 기쁘게 참여할 것인지 나눕니다.



워크북의 교과 과정

| 구분 | 제목 | 핵심 주제 |
|----|---|--|
| 1과 | 여행을 떠나며 – 나 너 그리고 우리 | 나와 우리, 첫 만남 |
| 2과 |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 하느님과 나, 부르심과 신앙생활 |
| 3과 | 길 위에 선 나와 너, 그리고 하느님 |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 |
| 4과 |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2장 읽기 | 젊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
| 5과 |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4장 읽기 | 젊은이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극복 방법 예수님과 맺는 우정을 통한 극복 |
| 6과 | 젊음의 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5-6장 읽기 | 참된 젊음의 모습 - 실패, 도움, 성장 |
| 7과 | 함께 걷는 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7장 읽기 |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 - 다가감, 열린 마음, 그리고 참된 봉사의 의미 |
| 8과 | 부르심과 식별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8-9장 읽기 |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힘 - 삶의 목표, 기도, 식별 |
| 9과 | 가자! 갈릴래아로!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젊은이의 용기 WYD를 향하여 |

각 단계의 핵심 방법론

각 과의 영적 여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안하신 시노드적 만남인 ‘엠마오 여정’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7항을 기본틀로 삼았습니다. 이 ‘엠마오 여정’에 따라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성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 관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며 물으십니다.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루카 24,17 그러자 제자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단순히 사건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느낀 슬픔과 좌절, 복잡한 감정과 함께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 상세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인내로이 들으십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정독하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청년들이 고백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각 과에 제시된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질문들을 각자의 경험과 연관 지어 성찰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경험에 녹아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의 단계’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사목 현장」 1항를 깊이 관찰하고 이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세상적인 것들과 선입견, 고정 관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삶의 여러 경험을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 경청과 식별

엠마오에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한 일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이처럼 ‘경청과 식별의 단계’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이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젊은이 5~6명 정도가 모여 함께 진행합니다. 모임은 ‘성령 안에서의 대화’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살아 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불어 다른 젊은이들을 하느님의 귀한 존재로 만나며,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시노드적 교회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에서 제시한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으면서 발견한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나눕니다. 또는 해당 과에서 제시된 질문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② 다른 이들의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첫 번째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③ 참여자들의 나눔을 들으며 어떤 새로운 울림이 있었는지 나눕니다. 이는 모임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고 계셨는지 느끼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④ 나눔이 끝나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두 번째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⑤ 침묵의 기도가 끝나면, 앞의 ③번 나눔에서 얻게 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합니다. 이를 복음적으로 식별한 뒤,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각 과에 제시된 질문을 참고하여 가치의 식별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나눔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됨’을 드러내기 위한 작은 공동체 미션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 : 일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불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루카 24,29}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를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머물며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자, 제자들은 그제야 “눈이 열려”^{루카 24,31}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을 때 마음이 타오르고 정신이 맑아진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므로 ‘일치의 단계’는 무엇보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일치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청년 미사 전에 나눔을 하고 성체성사를 통해 다 함께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신 후에는 모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를 실천에 옮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모임 후에 미사를 드릴 수 없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다 함께 성체 조배를 하거나 각 과에 제시된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번째 단계 : 파견

엠마오의 두 제자는 스승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몰랐던 때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엠마오로 향했

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곧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도록’ 회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곧바로 일어나” 루카 24,33 예수님을 만난 곳이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체험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를 이루어 복음의 참된 가치와 그 실천 방법을 깨닫게 된 젊은이들은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모임 이후, 나눔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해당 과의 핵심 주제를 심화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각자 읽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개인적 사명과 공동체적 사명을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파견의 단계’입니다.

‘엠마오 여정’을 따르는 위의 각 단계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2027 서울 WYD’로 향하는 모든 젊은이를 ‘세상을 이기는 용기 가득한 선교사’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개인적 준비

관찰의 단계

① 읽기

해당 과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정독하기



읽어 보아요

② 관찰하기

정독한 문헌 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과

각 과에 제시된 질문들을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기



생각해 보아요

공동체와 함께

경청과 식별의 단계 [성령 안에서의 대화] 약 60분 소요

①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 16쪽



성령 안에서의 대화

② 말하고 듣기 <나눔 1> 1명당 3~5분

삶의 경험에 비추어 와닿은 내용 또는 해당 과에 제시된 질문에 따른 생각 나누기

③ 성령께 귀 기울이기 <침묵과 기도 1>

다른 참가자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하기

④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 주기 <나눔 2> 1명당 3~5분

나눔 안에서 울림이 있었던 것과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자신과 공동체 안에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나누기

⑤ 성령께 귀 기울이기 <침묵과 기도 2>

모든 나눔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하기

⑥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 <나눔 3>

함께 발견한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식별해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기

공동체의 ‘하나 됨’을 드러내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기



함께 해 보아요

일치의 단계

① 다 함께 성체 조배를 하거나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바치기

또는 미사 안에서

성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기



성체 안에서의 일치

삶의 자리에서

파견의 단계

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해당 과의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회 가르침 읽기

② 실천하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맡기신

개인적 사명과 공동체적 사명을 실천하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노드를 위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 ◎ 아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닮게 지으신 이들이
외아들을 내어 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어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 저희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 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 ◎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
- +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님,
 - ◎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과 복자들이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4년 1월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인준

여행을 떠나며 - 나 너 그리고 우리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참다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86항,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래 빙고 판의 질문에 답을 적으면 나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체와 함께 칸을 채우며 서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 ① 빙고 판의 질문을 보고, 팔호 안에 나의 답을 적습니다.
- ②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나와 같은 답을 쓴 사람을 만나면, 해당 칸의 밑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칸을 채웁니다.
- ③ 먼저 2줄을 채운 사람이 “빙고!”를 외칩니다.

.. B I N G O ..

| | | | |
|--|-----------------------------------|--|-----------------------------------|
| 뜨아 vs 아야 [_____] | 좋아하는 계절 [_____] | 활동하는 단체 [_____] | 나만의 기도 시간 [_____ 시] |
| 좋아하는 음식 [_____] | 성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_____] |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나요? [O , X] _____ | 최애 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_____] |
| 평일 아침 기상 시간은? [5, 6, 7, 8, 9~] _____ | 나의 MBTI [_____] | 산 vs 바다 [_____] | 견진성사를 받았나요? [O , X] _____ |
| 고해성사 본 지 얼마나 되었나요? [1달, 3달, 6달~] _____ | 쉬는 날 나는? [집 , 밖] _____ | 나의 취미 [_____] | 짜장면 vs 짬뽕 [_____] |



읽어 보아요

아래의 글을 정성껏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류가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하여 점점 더 깊이 투신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자의식이라는 지평 안에서 펼쳐져 온 여정으로서, 인간이 실제와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욱 자신의 독특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절박해지는 사물들과 그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식의 대상이 모두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델피Delphi 신전의 문설주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는 권고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자, 곧 ‘자기 자신을 아는’ 존재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기본 진리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대 역사를 잠시 훑어보더라도, 세계의 여러 구석에서 상이한 문화 전통 속에서 인간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 질문들, 곧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승살이가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등의 질문들이 어떻게 동시에 솟아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책들, 「베다」와 「아베스타」, 공자孔子와 노자老子의 저술들, 그리고 티르탄카라와 부처의 설교들 속에서 발견하고, 또 호메로스의 시와 에우리피데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는 물론, 플라톤과 아リスト텔레스의 철학 작품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정신을 언제나 압박해 온 의미 탐구라는 공통의 원천으로부터 솟아나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사람들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게 됩니다.

『신앙과 이성』 1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생각해 보아요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년 2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인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가 삶에서 수차례 경험해 본 어두운 밤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현존하시어, 우리 존재의 의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들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사랑하는가?’, ‘왜 고통받는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주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어둠은 밝혀지고 고통의 그늘에 앉아 있는 수많은 이들은 길을 찾게 됩니다. 루카 1,79 참조

「놀라운 표징」 4항, 프란치스코 교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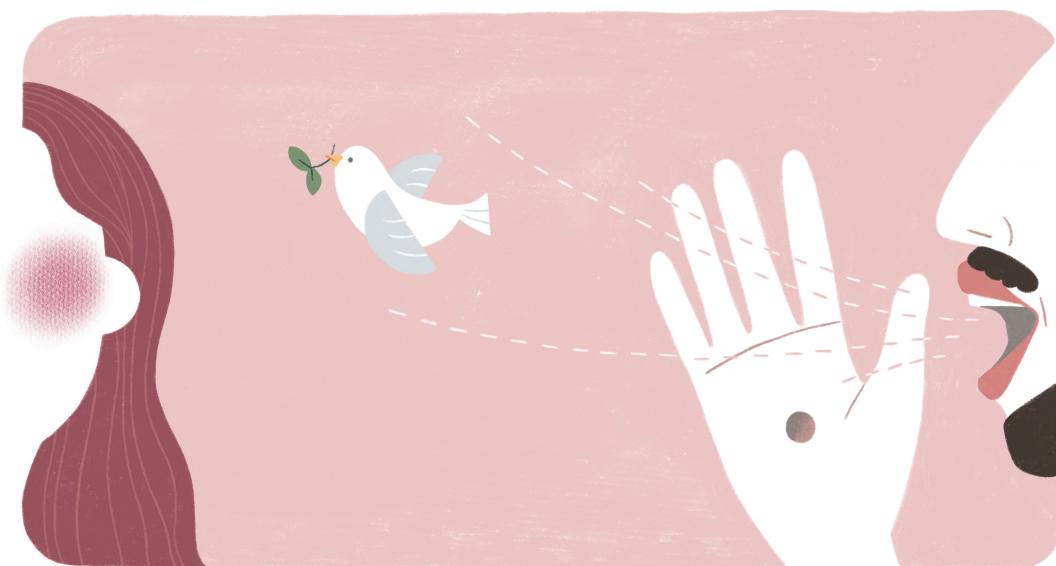
2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순례하는 백성의 일원인 우리가 당신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여 우리의 다양한 생활 신분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선물들을 어디에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랑과 관대한 수용, 아름다움과
평화의 표징이자 도구가 되기 위하여 따를 수 있는 길
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제61차 성소 주일 담화」 2004년,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아래의 글을 정성껏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마태오 복음서 14장 22-33절은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폭풍우 치던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군중의 경탄을 자아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이 장면은 어느 모로는 우리 삶의 여정을 연상시켜 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전한 물에 닿기를 초조히 고대하며, 바다 위에서 기회든 위험이든 맞닥뜨릴 채비를 하는 동시에, 키잡이가 우리를 마침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배가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등대의 불빛을 좋아가는 대신에, 환영에 현혹되어 버리거나, 난관과 의혹과 두려움이라는 맞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나자렛의 스승을 따르라고 부름받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주님을 따라나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건너편 강가로 건너갈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험은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밤이 되어 맞바람이 불고 배는 출렁이는 파도에 요동칩니다. 부르심에 부응할 수 없고 이를 해낼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압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힘겨운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한밤을 가르는 여명의 첫 빛줄기처럼, 주님께서는 파도로 심하게 출렁이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께서는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구해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성소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눈길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배가 폭풍우에 휩싸이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성소가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소는 주님의 과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60주년을 맞이하여 사제들에게 보내는 서한, 2019.8.4. 따라서 마음을 열어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성소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57차 성소 주일 담화」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





생각해 보아요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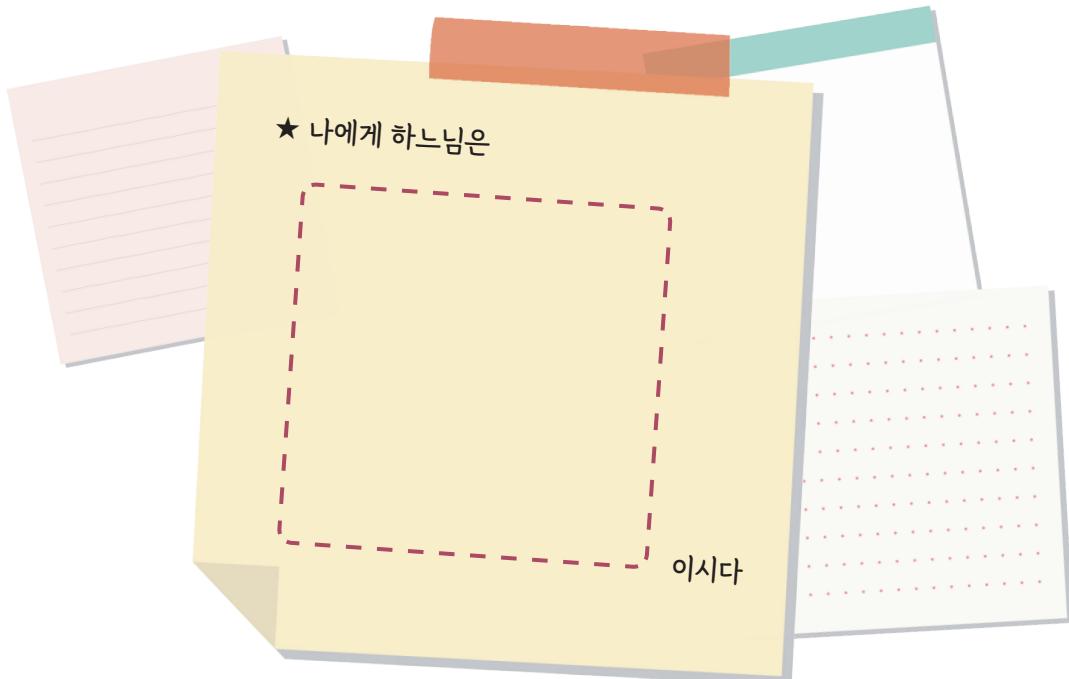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혹은 문장을 각자 메모지에 적고, 함께 모아 사진을 찍습니다. 해당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삶이 좋은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삶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젊은이들은 우리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믿음의 빛입니다. 믿음의 빛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 사랑의 열매이므로 모든 인간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진 이들이든 당신을 잊어버린 이들이든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내로이 기다려 주십니다.

「제28차 청소년 주일 담화」 2013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3과

길 위에 선 나와 너, 그리고 하느님

우리는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또는 ‘더 많이 인정받고 더 큰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쾌락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겉모습이나 감정들 말고,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슬픔을 안겨 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나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바로 또 다른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하고, 세상과 교회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나의 진짜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85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아래의 글을 정성껏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젊은이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주요 문제가 안정이나 평온함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안정된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의 젊은 시절을 회상해 볼 때 무엇보다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진부한 중산층의 삶에 안주하는 것을 꺼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위대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멋진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폭넓은 가능성을 경험하고자 열망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탈피하고픈 이러한 충동이 모든 세대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과 안정된 직장을 벗어난 어떤 것을 열망하고 참으로 위대한 무언가를 염원하는 것도 젊음의 일부입니다. [...]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고백록」라고 고백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인호’가 새겨져 있다는 징표입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지향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열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하느님을 지워 버려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세계의 일부 지역, 특히 서방의 현대 문화는 하느님을 배제하고 신앙을 사회생활과는 무관한 순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연대, 노동, 가정의 의미처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은 복음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하느님의 실종’ eclipse of God, 곧 일종의 기억 상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드러내 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은 신앙의 보화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러한 연유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써 보냈듯이, 뿌리를 내려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확실한 준거를 갖지 못하여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유효하고 진리나 절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참다운 자유는커녕, 불안과 혼돈, 맹목적인 유행 추종으로 이깁니다. 어린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까지 한결같은 보살핌이 필요하듯, 젊은이 여러분도 이전 세대들에게서 삶의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확고한 판단 기준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차 청소년 주일 담화」 2011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생각해 보아요

-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
.....
.....
 - 삶의 마지막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또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
.....
.....
.....
.....
 -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
.....
.....
.....
.....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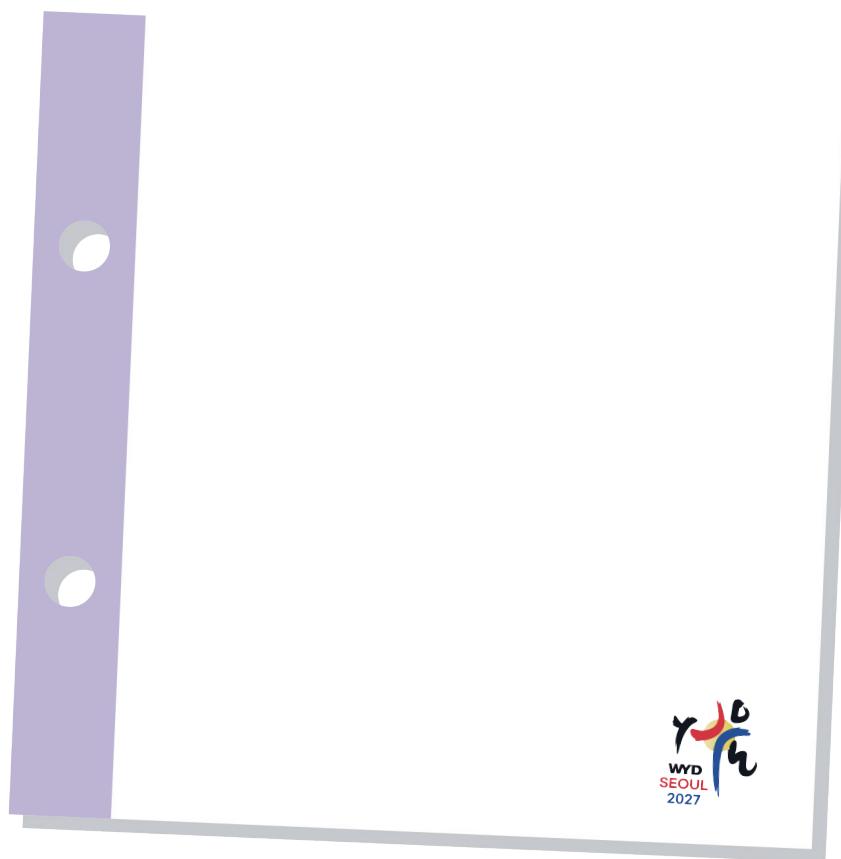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종이 한 장에 공동체 모두가 각자 삶의 목표를 그림으로 그려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완성된 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히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참여하면서 하느님과의 충만한 친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희망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의 온 존재가 당신과 하나 될 때, 더 이상의 고통과 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생명은 당신으로 온전히 채워진 참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한 친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의 소명이고, 모든 이가 열망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열망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덧없는 쾌락, 한 번 경험하면 계속해서 더 갈망하게 만드는 순간의 만족감, 우리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고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드는 집착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슬픔, 분노, 두려움, 의심, 실패를 겪으며
늙어 간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고자
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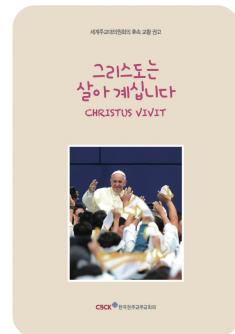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2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예수님의 초상화〉, 1645–1650, 렘브란트



생각해 보아요

- 여러분이 생각하는 ‘젊음’이란 무엇인가요?
.....
.....
.....
.....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젊은 예수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일” 31항이 매우 중요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또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을 떠올
리며 글로 적어 봅시다.
.....
.....
.....
 -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느님과 종교와 교회라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그들의 감수
성은 일깨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9항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게 ‘그리스도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오늘 모임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키워드를 선정하여 각자 메모지에 적고, 함께 모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21세기에 선종한 첫 성인이 탄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에 필요한 기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매일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쳤다. 그는 ‘성체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라거나 ‘사람들이 태양 아래 앉아 있으면 살이 타지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성인이 된다.’는 글을 적어 놓기도 했다. 그는 평범한 10대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2006년에 백혈병으로 선종했다. 「가톨릭신문」 2024.6.2.

카를로 아쿠티스 1991-2006 :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는 이탈리아 소년 복자. 독학으로 컴퓨터 코딩을 익혀서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모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15세에 주님 곁으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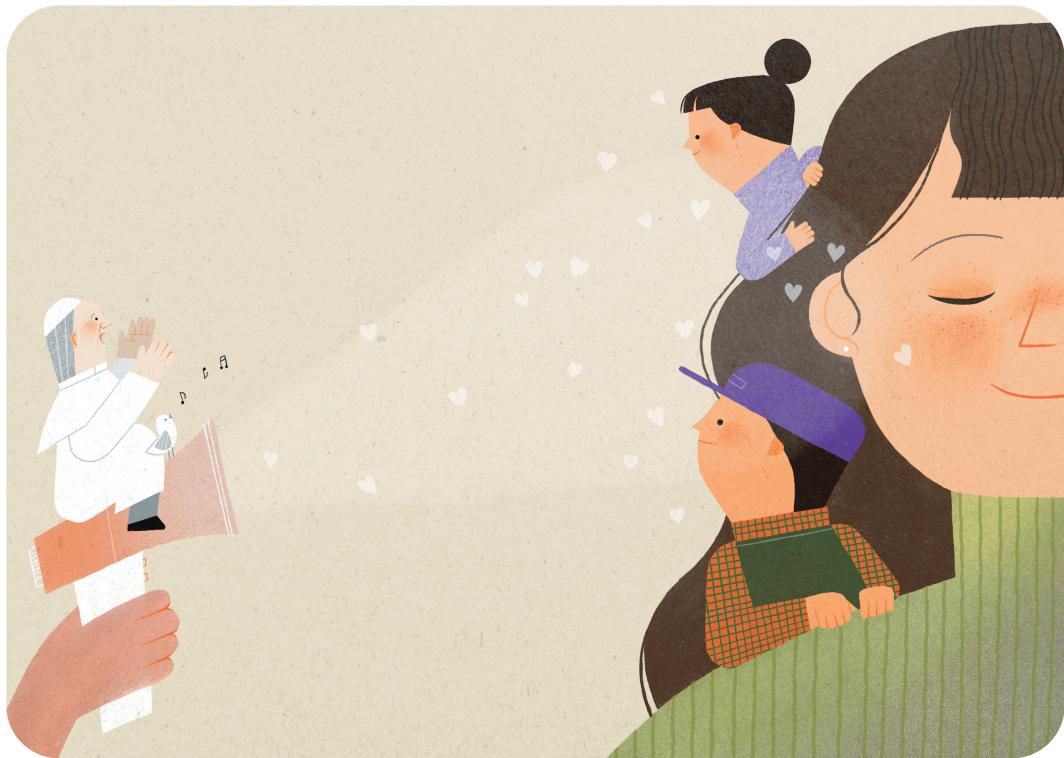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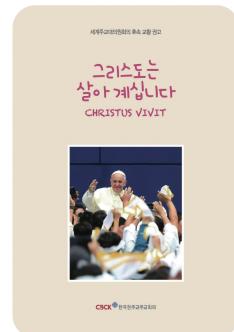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07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4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여러분이 젊은데도 힘없고 지치고 실의에 빠진다면, 예수님께 새로운 힘을 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행이나 나쁜 습관들, 이기심이나 불건전한 쾌락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께 여러분을 새로워지게 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어 여러분의 젊음이 가치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만의 특별함과 고유함으로 세상에 여러분만이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09항, 프란치스코 교황





생각해 보아요

-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가요?
.....
.....
.....
.....
.....
.....
.....
 -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 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님 안에서 어려움
을 극복한 체험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
.....
.....
.....
.....
.....
.....
 - 전 세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
.....
.....
.....
.....
.....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오늘 또는 지금의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각자 메모지에 적고, 함께 모아 사진을 찍습니다. 해당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불안해지더라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고요히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이 평화를 다시 찾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영혼에게 이리 말 하십시오. “친구야,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뎠나 봐.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자.”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 그 무엇보다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 팔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발걸음이 휘청거리게 내버려두신다 하더라도, 이는 오직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대가 완전히 쓰러지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가시 속의 장미」 43~44쪽,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가톨릭출판사

6과

젊음의 길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머물고 그분과의 ‘접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지력만으로는 행복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끊어지지 않게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접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에, “예수님, 저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라고 주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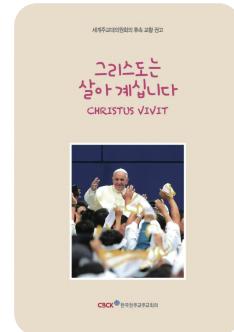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58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5~6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젊은이들의 기쁨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젊은이들이 특히 형제적 친교의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함께 나누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탁월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67항, 프란치스코 교황





생각해 보아요

-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우정을 맺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이를 보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신앙을 전해 준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 내가 주변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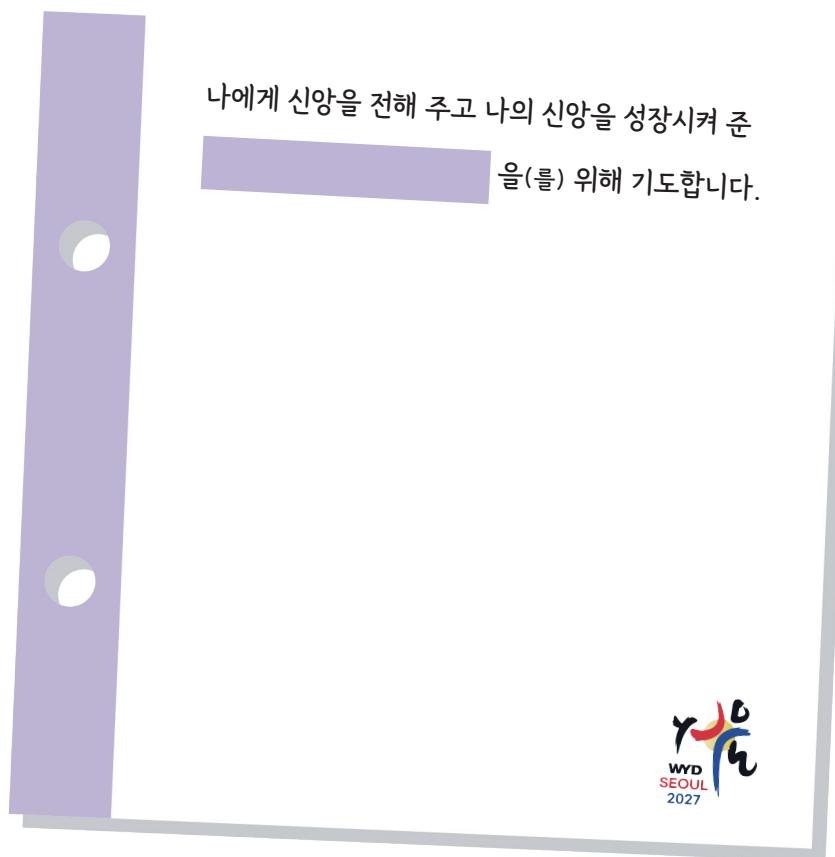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나에게 신앙을 전해 주었거나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었던 분을 떠올리며 각자 짧은 기도문을 써 봅시다. 그리고 이를 모아 공동체원과 함께 릴레이 기도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기도문을 사진으로 찍고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로사 할머니 이야기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항상 노인들의 지혜, 특히 신앙의 전수에 있어 조부모가 지닌 ‘위대한 임무’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삶으로 증거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생각은 알도 마리아 발리 Aldo Maria Valli 가 쓴 소책자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Avete un compito grande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책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릴 적, 친할머니이신 로사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을 전해 주었는지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신앙의 여정을 알려 주신 분은 아버지의 어머니, 즉 친할머니셨습니다.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저녁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희를 촛불 행렬에 데려가셨습니다. 이 행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셨고, 할머니는 그 앞에 도착해 우리와 함께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내일 다시 부활하실 거란다!’ 이렇게 저는 바로 이 여성, 저의 할머니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는 어찌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첫 번째 선포를 듣다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을 전하는 많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바로 이들입니다. [...]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의 친할머니, 로사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성인들의 삶을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13개월이 되었을 때 남동생이 태어났고 어머니는 어린 두 아이를 모두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살던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저를 데리러 오시고 저녁에 다시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털어놓았을 때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렴. 네 마음이 바뀐다 해도 아무도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교황님께서 전해 주신 로사 할머니의 또 다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종 할머니께서는 어린 우리들에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로사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직접 쓴 유언장을 아직도 성무일도에 접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본 나의 손자들이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고통이나 질병,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슬픔으로 채운다면, 그들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가장 위대하고 존엄한 순교자가 모셔진 감실에서 탄식하고 십자가 아래 서 계신 마리아를 바라본다면,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에 한 방울의 향유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과

함께 걷는 길

청년 사목은

시노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 사목은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 각자의

성소와 역할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사들을,
공동 책임의 역동성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공동 책임의 참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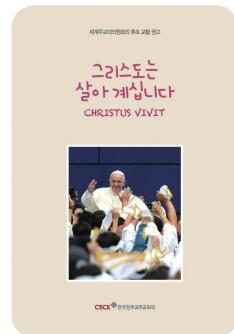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6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7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생각해 보아요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공동체 전체가 환대를 표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사진에 @wydseoul2027 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지 않으면 살아가고 발전하며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나 자신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가 없다면,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들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유대, 친교, 형제애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관계와 충실한 유대 위에 세워진 삶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반면에 자족하며 섬처럼 살아가려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모든 형제들」 87항, 프란치스코 교황

부르심과 식별

‘성소’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생명으로 부르심, 주님과 나누는 우정으로 부르심,
성덕으로 부르심 등을 다 아우르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순전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응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두신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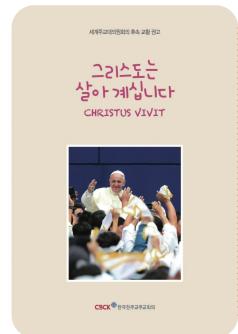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48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8~9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성소에 응답하려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면을 증진하고 싹틔우고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치장하거나 우리 자신을 무에서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꽂피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57항, 프란치스코 교황





생각해 보아요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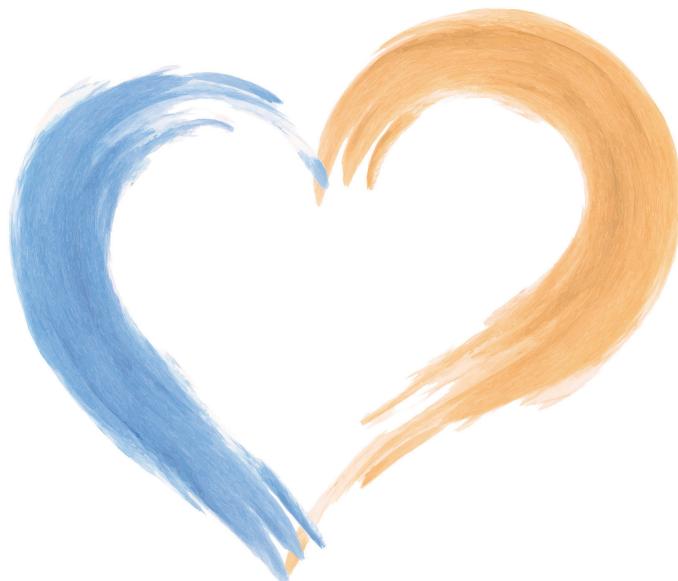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종이 위에 커다란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완성되면 사진으로 찍고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그리스도는 몸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발로 그리스도는 좋은 일을 하려 나갑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는 축복을 줍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슈바르츠발트 지역 전통의 ‘팔 없는 십자가’



가자! 갈릴래아로!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마태 28,7



우리는 그동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과 우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여, 교황님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사랑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천사를 보내시어 제자들에게 당신이 먼저 ‘갈릴래아’로 가 계실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갈릴래아로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갈릴래아는 바로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각자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그들과 맺는 다양한 사랑의 체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의 마지막 결실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써 보아요

그동안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공동체와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기록한 워크북을 다시 열어 봅시다. 이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 봅시다.





생각해 보아요

-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선포하셨습니다.
 - 이제는 WYD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교황님께서 WYD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울러 이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이 여정을 함께한 공동체원 모두에게 감사 편지일명 ‘롤링 페이퍼’를 전해 봅시다. 편지지 맨 위에 본인의 이름을 쓴 후 옆 사람에게 건네고, 편지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감사한 마음을 적습니다. 모두 작성이 끝나면 워크북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2027 서울 WYD’ 순례는, 젊은이들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오늘날 세계 청년들이 마주한 새로운 형태의 고통과 불의를 성찰하고 나누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이 축제를 통해 세계 젊은이들의 고민과 열정을 나누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WYD 순례자들은 자신이 깨닫게 된 복음의 기쁨을 각자의 삶에서 담대히 실천하는 ‘용기 가득한 선교사’로 세상에 파견될 것입니다. 온 교회는 이 기간을 함께하면서 젊은이들이 나누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보여 주는 새로운 열정을 배우며, 그들과 함께 역동적인 신앙 고백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젊은이와 신앙인들과 함께, 세계의 젊은이가 교회의 지체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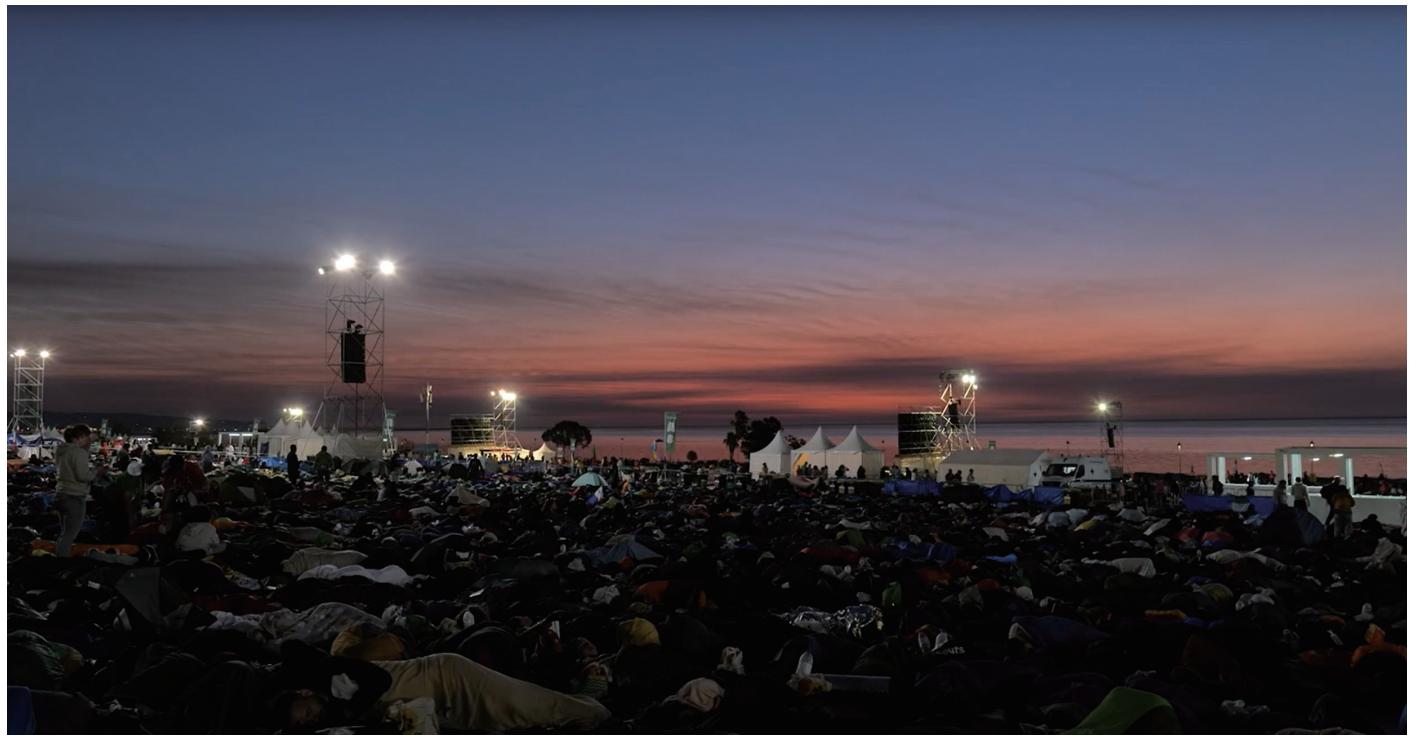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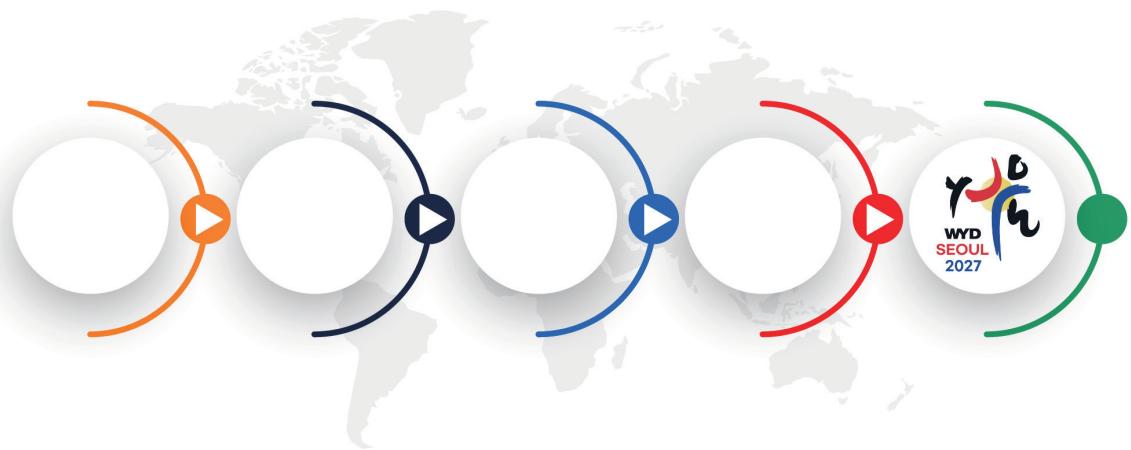
정순택 대주교,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 발표 기자회견 중

여정을 마치며 하느님께 청하는 나의 기도



2027 서울 WYD를 향한 나의 여정

준비 단계부터 WYD까지 참여했던 나의 여정을 기록해 봅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